

전력직접구매제 본격 시동...기업들 '탈한전' 시작되나

산업용 전기요금 지속 인상에 기업들 전력직접구매 신청 늘 듯 한전, 재무구조 정상화 차질...수익 구조 개선 방안 마련해야

막대한 누적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력직접 구매제 시행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용량 전기 수요자인 기업들이 기존처럼 한전을 통하지 않고, 전력 구매비용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전력직접구매'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달 28일 '전력직접구매제도 정비'를 위한 규칙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계의 대형 전기 소비자들이 한전을 거치지 않고, 한국전력거래소와 전력도매가격(SMP) 기준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력직접구매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수전설비용량이 3만kVA(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기업 등 대규모 전기 소비자들이 대상이다.

그동안 산업계에선 한전의 원가보다 낮은 전력 판매에 따라 '전력직접구매제'에 대한 요구는 없

었지만, 한전이 최근 8차례에 걸쳐 산업용 전기 요금을 인상한 이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실제 한전은 2021-2023년 3년 만에 연결 기준 43조원의 막대한 누적적자를 기록한 이후 적자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까지 8차례에 걸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상태다. 해당 기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률은 70%에 이른다.

한전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국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용 등의 다른 전기요금은 동결하는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만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으며, 기업들 사이에선 '탈한전' 목소리가 나오는 등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전력직접구매가 시행되면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반발해 '탈한전'을 계획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첫 주자로 'SK에너지'가 지난해 말 전력직접구매를 신청하기도 했다.

전력업계에서는 기업이 전력직접구매를 활용하

면 한전 전기 소매가보다 1kWh(킬로와트시) 당 20원 이상 저렴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대규모 전력 소비 기업의 이탈이 현실화할 경우 한전의 최우선 목표인 재무구조 정상화 계획에도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전력직접구매제의 대상이 되는 산업계가 한전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한전 총 매출은 연결기준 93조 3990억원, 이 중 전기판매수익이 88조 8900억원(95.2%)이다. 별도기준으로 봐도 총 매출 91조 6470억원 중 전기판매수익이 90조 330억원(98.2%)에 달한다.

특히 전기판매수익에서 산업용 전기수익 비중은 52%로, 전력직접구매제 시행 이후 기업들의 '탈한전' 현상이 가속화 될 경우 한전의 재무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직접구매제 시행 이후 기업 이탈 규모 등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직접구매를 하더라도 한전 소유의 송배전망 등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관련 수익 구조 개선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기후변화 대응 순회 교육 성료

전남 18개 지사, 재난 대응 교육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달 5-31일 진행된 전남지역 18개 지사 순회 교육(사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순회 교육은 최근 급변하는 기후환경에 따라 안전한 시설물 관리 및 직원들의 재해 위험 대처능력 향상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남지역본부의 경우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만 1051개소로 전국(3424개소)의 31%를 차지하고, 배수장은 945개소 중 154개소(16%), 방조제 역시 전국 143개소의 54%인 77개소에 달하는 만큼 직원들의 시설물 관리 능력 향상이 필수적이다.

이에 전남지역본부는 지난달 5일부터 1달여에

걸쳐 관내 18개 지사를 대상으로 '재난은 절대 나와 우리를 피해 가지 않는다, 골든타임을 잡아라'와 '전남본부의 미래는 수자원 관리와 기반 시설에서 찾자'라는 주제로 한 재난 대응 가이드 교육을 실시했다.

전남지역본부는 이번 교육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제고 뿐만 아니라 실무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식 전남지역본부장은 "재해 발생 시 필수적인 신속한 대응은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부터 시작된다"며 "안전한 농어촌 환경 조성을 위해 재해예방 및 대응 시스템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국민눈높이 청렴행정"...전력거래소, 청렴 옴부즈만 운영협의회 개최

청렴정책 추진방향 등 논의

한국전력거래소는 "최근 '2025년도 1분기 청렴 옴부즈만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청렴 옴부즈만은 전력거래소의 주요 청렴 정책들에 대한 자문, 제도개선 권고, 청렴정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외부 청렴 전문가인 청렴 옴부즈만과 전력거래소 내부 담당자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청렴평가 결과를 분석하고 올해 청렴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청렴 옴부즈만은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청렴의식을 심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운영협의회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을 검토해 '2025 청렴도 향상 추진 방안' 등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 분기별 정기회의



를 갖고,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렴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동희 전력거래소 이사장은 "올해는 운영 투명성과 청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면서

"청렴 옴부즈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전KDN, 공정거래 질서 확립 다짐 서약식



나주시 빛가람동 한전KDN 본사에서 지난 31일 노사 대표들이 서약서에 전자서명하고 있다. (한전KDN 제공)

한전KDN은 "지난 31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 빛가람홀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식'을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모든 임직원의 공정거래 실천을 결의하고, 대내외 신뢰 회복 및 투명한 공정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식은 본사 임직원들의 현장 참여와 지역사우소 내 실시간 사내 방송을 통해 임직원 전원이 참여했다.

서약식은 박상형 한전KDN 사장의 공정 경영 및 공정 계약 준수 당부로 시작으로, 개선된 계약업무 소개, 노사 대표 서약식, 공정거래 준수의 중요성 및 부당공통행위 예방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경쟁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미래 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내부 부패 척결"...aT, 반부패·윤리 TF 발대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31일 나주시 빛가람동 본사에서 조직의 청렴 운영을 위한 '반부패·윤리 TF'의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반부패·윤리 TF는 조직 내 부패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관장과 상임감사 공동 주관하는 임시

조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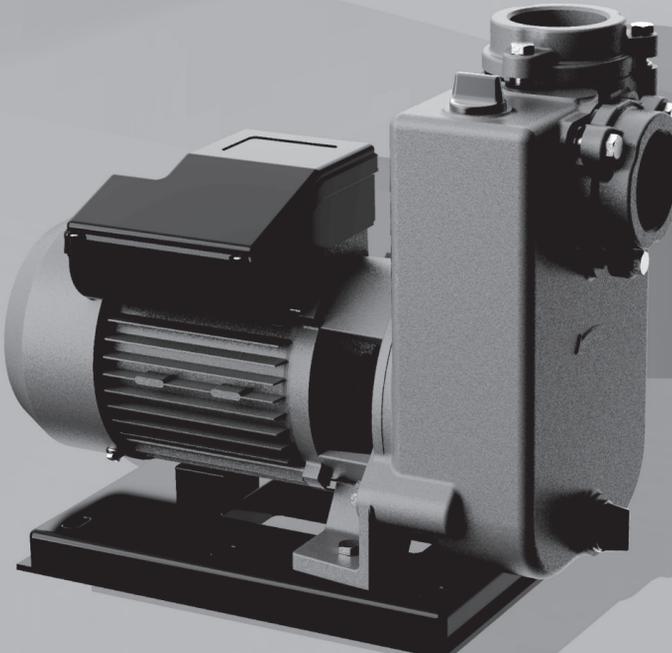
이날 발대식에서는 향후 TF 운영 방향과 목표를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반부패·윤리경영 실천을 선언했다. aT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공공기관으로서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특히 청렴도 평가에서 취약하다고 지적된 분야

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예산집행, 조직 운영, 협력업체 상생, 수출·유통사업 등 각 부문에 대한 부패 요인을 면밀하게 검토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농어촌·농어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조직 운영에 있어 부패 요소를 찾고 개선하는 것은 필수 과업"이라며 "정렬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